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사진 : 박동석 요셉(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4,11~12,15~17

화답송 시편 23(22),1~2,7,24~3,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쉬울것없어 라.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2.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3.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옵니다. ◎
4.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코린토 1서 15,20~26,28

복음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마태오 25,31~46

영성체송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한국 평신도 희년’ 전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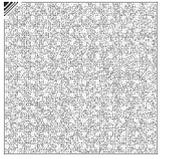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33회 성서 주간 (11월 26일~12월 2일)

한국 교회는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며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서주간 말씀잔치 - 6면 참조)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나의 양 떼야



오늘 교회는 연중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온 누리의 임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계속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이번 주간이 더 각별한 것은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숙고와 묵상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그분, 세상에 오실 하느님의 아들을 기다리며 교회의 새해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어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죄'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왕권이 세운 공정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이 좋아들거나 가슴이 철렁하진 않으셨나요? 하지

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자책에 빠지고 겁에 질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비의 현장이라는 걸 오늘 제1독서 말씀이 밝혀주니까요. 주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고백을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나의 양 떼들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점 한 획도 어긋남 없이 실천하시는 신비의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자녀를 '찾아서 보살피고' 흠어져 헤매는 길에서 '구해 내며' 몸소 '데려와 먹이고 누워 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만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고' 우리의 '원기를 북돋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화해뿐입니다. 우리들이 당신의 생명을 놓치지 않기만 바라합니다. 오

늘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날, 주님의 오른편에 서지 못하고 기껏 염소 자리에 몰려 있다면 주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런 광경이 벌어진다면 우리 꼴은, 우리 심정은 또 어떨까요? 그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어설픈 교만을 치우고 알량한 자존심을 베어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는 은혜를 갈구해야겠습니다. 그날,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오라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작은 일에 쏟은 정성과 작은 사람을 위한 사랑과 사소한 것에 보탠 작은 위로에 있다는 걸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하여 우리 모두가 그날 하느님만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든실한 믿음인으로 우뚝 서시길, 소원합니다.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
선교사목국장



지금 여기



글·그림 : 이영 아네스 수필가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임에도 나이는, 전공은, 직업은 무엇이냐는 질문 참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처음 알아가는 자리라면 이젠 당신에 대해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겠습니다. 화가 몹시 날 때 어떻게 하는지, 오래 기억에 남는 음식은 무엇인지, 소나기가 쏟아질 때 새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그럴 때 당신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1.27(월)~28(화)
장재봉 신부(선교사목국장)

11.29(수)~12.2(토)
박세중 신부(개금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11.28(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남산성당 복지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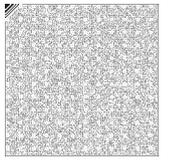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2.1(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인천교구 이용훈 마르티노



미사의 허용과 금지



신 호 철 비 오 신 부

이번 주는, 새 미사 경본 소개의 마무리를 대신하여,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사 경본과 전례력에는 어떤 날 또는 시기에 무슨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또는 ‘금지된다.’는 표현이 종종 나온다.

어떤 날에 신심 미사, 위령 미사, 예식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또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예식과 미사를 거행하는 것 자체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사를 위해 **어떤 전례문을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례 예식, 병자성사 예식 및 혼인 예식을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우선 1969년에 반포된 『장례 예식』의 경우 지침 6항이 이와 관련된 규정인데, 이것은 5년 뒤인 1974년 9월 18일에 발표된 경신 성사성 답서를 참조하여 해석해야

한다. 장례 미사가 금지된 날에는 장례 미사 전례문을 사용할 수 없고 그날의 전례문을 사용하여 미사를 드리며 그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때 규정에 따라 『위령 독서집』에 제시된 독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날 독서 대신 선포할 수 있다.

『장례 예식』보다 뒤에 반포된 『병자성사 예식』(1972년) 81항 및 97항 그리고 『혼인 예식』(1991년) 지침 34항에는 위에 언급한 답서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병자성사 예식 미사와 혼인 예식 미사가 금지된 날에는 그날 전례문을 사용하여 미사를 드리고 그 미사 중에 해당 예식을 거행한다. 이때 규정에 따라 각 예식과 관련된 독서를 선택하여 그날 독서 대신 선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처럼 미사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어느 날이라도

미사 중에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며, 납득할만한 사목적 이유로 미사 없이 예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날 미사에 어느 전례문을 사용해야 하느냐에 관한 지침이며, 미사 중에 그 예식을 거행할 수 있음과 없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예식 거행의 가부 자체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그 예식을 거행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는데, 예를 들어 성당 축성 예식은 미사와 분리할 수 없으며 모든 전례문이 축성의 뜻을 드러내어야 하므로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신비를 기념하는 축일에는 새 성당을 축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당 축성 예식서』의 ‘성당 축성 예식’ 7항에 명시되어 있다.

■ 부산가톨릭대학교 기획정보처장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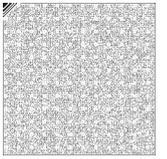
환경과 생명 **흘러넘치는 생명**

1996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그의 생애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음 앞에 서 봐도 저의 신념엔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소멸합니다. 내 육체와 내 영혼 모두 태어나기 전의 무(無)로 돌아갑니다. 묘비에서 저를 기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문득 기억날 땐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토록 자신만만한 자의식을 가진 당당한 무신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우주의 신비를 차근차근 밝혀낼 수 있기에 ‘하느님’은 어쩌면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신비, 그 끝은 어디에 가 닿을까요? 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명의 신비를 완전히 다 밝혀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신비는 원칙적으로 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사는 새우 중 ‘투

구새우’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투구새우는 알에서 깨어나 죽을 때까지 고작 한 달이 넘지 않는 3주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가뭄이 지속되면 자체 봉합된 용기 안에서 사막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온도와 빛이 좋아질 때까지 무려 수백 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인간에 비교해본다면 투구새우는 그 긴 시간 1년에 3번 심장 맥박을 치는 것으로 버틴다고 합니다. 과연 생명의 신비는 분명 인간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지난 목요일 세상이 두 쪽 나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수능이 1주일 연기되어 치러졌습니다. 인간의 지성, 계획 등이 얼마나 허무한지 단박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 앞에서 교황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만을 찾는 것은 ……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들을 숨기는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111항)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교구 자선아파트 부지매각에 따른 나눔실천 결과



2017년 1월 8일자 교구 주보에 공지된 바대로, 교구 재무평의회에서는 경제사정이 열악했던 교구 초창기에도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교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었던 만큼, 지금의 교구 공동체 역시 그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여, 해운대 소재 '천주교부산교구 자선아파트'가 정리되면서 보상받게 된 30억 원(세금납부 전 금액) 전액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017년 1월 9일자 공문을 통해 《나눔실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위원회는 2017년 1월 2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지

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업명	금액	시행기관	비고
본당 통한 나눔실천(109개 본당)	1,156,810,000	각 본당	완료
이주노동자센터 운영	500,000,000	노동사목	진행 중
징검다리은행	300,000,000	사회사목국	진행 중
생명수호 가정지원	150,000,000	사회사목국	진행 중
다자녀 가정지원	100,000,000	사회사목국	진행 중
소규모 복지시설지원	150,000,000	사회사목국	진행 중
평화여성의집 지원	100,000,000	평화여성의집	예정
영세민 부부지원	100,000,000	부산가정성당	예정
대북지원	20,000,000	민족화해위원회	완료
타 교구 지원(안동 사별퇴각 성당)	50,000,000	관리국	완료
미안마교회 지원	22,853,600 (USD 20,000)	관리국	완료
총 계	26억 49,663,600원		



위령성월의 보다 깊은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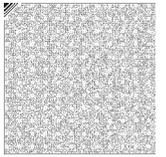
위령성월을 좋아하시나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11월이란 계절도 쓸쓸하고 스산한데다가, 죽음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은 게 사람 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부님의 강론 중에 자신은 위령성월과 장례미사를 좋아한다고 하기에, 그 까닭이 궁금해 귀를 쫓긋 세웠습니다. 이유인즉 그것들이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보게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또 다가올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과 죽음을 보고

있기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삶과 죽음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난 번씩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편에선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더 잘 보이며, 미워하기는커녕 사랑할 시간마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더 커집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게 위령성월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을 위한 죽음의 초대! 죽음은 삶을 무의미로 이끌기도 하지만, 제대로만 보면 더 열심히 삶을 살아내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jubo@catb.kr

덕계성당, 봉헌식



덕계성당(주임 : 박명제 신부, 회장 : 공형복 안토니오)은 기존 지하 성전에서 신앙공동체 생활을 해오다가, 신자들의 기도와 노력의 결실

로 최근 새 성전을 완공하여, 지난 11월 19일(일)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동료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850여

명이 미사에 참례해, 새 성전 봉헌을 함께 축하했다. 특별히 이날 미사 중에 한국 평신도 희년 선포식, 견진성사도 함께 거행되어 축하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굳건한 마음의 양식을 얻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덕계



동래



부산



남천

한국 평신도 희년 선포식
11월 19일(일)
교구 각 본당에서 실시



반송



임호



온천



안락

한국 평신도 희년 전대사

2017년 11월 19일(평신도주일) ~ 2018년 11월 11일(평신도주일)

※ 수여받은 전대사는 연옥 영혼을 위해 전구를 청하는 형식으로 양도 가능

전대사 조건 : 아래의 1, 2를 모두 실천한다.

1.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바치기
2. 아래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실천하기
 - 평신도 희년 거행 예식 (개막미사, 폐막미사, 평신도 대회)에 참여하기
 - 2018년 교구장 사목지침의 실천사항 실천하기
 - 교구장이 지정한 전대사 순례지를 방문하여, '성소' (사제성소, 수도성소, 가정과 혼인성소)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신경 바치기

비고

- 노인, 병자,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바치기
 - 희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모 상분을 바라보면서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키기
 - 기도와 고통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기

▶ 교구 전대사 순례지 남천성당, 중앙성당, 부산성당, 연양성당, 오륜대순교자성지, 김범우순교자성지, 울산병영순교성지, 수영장대순교성지



새 로마 미사 경본 교육

11월 20일(월) 주교좌 남천성당 소성전
 강사 : 신호철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기획정보처장&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
 대상 : 본당 전교 수녀 및 전례 봉사자 250여 명 참석
 내용 : 1부 - 새 로마 미사경본 특징 소개, 2부 - 새로 편찬된 전례서(미사경본, 미사독서, 복음집)들을 실제로 미사 전례 중에 사용하는 방법 설명

교 구

성서주간 말씀찬치
 [부산] · 11.27(월) 10:00~16:30 / 19:00~22:00
 · 주교좌 남천성당 / 10:00 미사 주례 : 손산석 주교
 주제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강사 : 이동화 신부(신학원장 겸 신학대학 교수)
 참가비 : 초대(초대권 지참 - 강의록 교환, 점심 도시락 지참) ※ 당일 초대권 교부가능
 [울산] · 11.27(월) 10:00~16:00 · 복산성당
 15:00 파견미사 주례 : 울산대리구장 권지호 신부
 주제 : 공동체의 일치와 믿음(코린토서)
 강사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
 준비물 : 도시락, 물컵
 문의 : 465-8162(부산), 010-5115-4627(울산)

성소자를 위한 기도도임 피정(부산, 울산)
 · 12.1(금) 10:00~16:30 · 교구청 5층 강당
 준비물 : 묵주, 미사도구 / 문의 : 629-8760(성소국)

본 당

반송성당 관리장 구함
 자격 : 운전면허(1종보통) / 문의 : 542-1530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석포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자격 : PC(한글, 엑셀) 사용 가능자, 운전면허(1종보통) / 문의 : 625-2101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 공원

가족봉안묘 19단 (6위형) 신규 분양

▶ 분양 시작일 ▶ 교적 지참 후 현장 방문 시 분양 가능
 11월 27일(월) (개방시간 09:00~17:00, 연중무휴)

※ 문의 : (055)374-8733(관리사무실)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울산] 11.27(월) 19:30 아음성당 성전
 주제 : 에너지정책과 탈핵으로 가는 길
 강사 : 이현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465-9508 / 무료강의와 미사

오륜대순교자성지 대림시기 하루피정
 · 12.9(토) 09:00~17:00 · 오륜대순교자성지
 주제 : 생명의 말씀과 함께
 대상 : 남녀 모든 신자(선착순 60명)
 문의 : 515-0030(성지 사무실)

군중후원회 성탄 위문품 발송 군인 등록
 내용 : 본당, 성명(세례명), 부대주소, 제대에정일, 부모연락처 / 마감 : 12.5(화), 일반사병에 한함
 문의 :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부산가톨릭음악협회 후원회 감사미사
 · 11.28(화) 19:30 · 양정성당
 주례 : 임석수 신부 / 연주 : 라우다메윈드앙상블
 문의 : 010-8545-6504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 모집
 · 11.29(수) 19:30 · 망미성당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문의 : 010-7339-8545 / 단장 : 김종민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주보 게재 기간 2018년 1, 2, 3월(3개월)
 ▶ 신청 12.1(금)부터 선착순
 ▶ 문의 629-8752 ▶ 이메일 jubo@catb.kr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
 · 12.1(금) 22:30 (첫금토) 신심미사
 - 젊은이 성령기도회
 · 11.27(월) 19:30 전포성당
 · 11.29(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 (버스안내카드 참조)
 · 11.29(수) 11:00~16:00 / 점심 제공
 강사 : 이란 자매(마산교구)
 - 후원회 월미사 (버스안내카드 참조)
 · 11.27(월) 11:00 / 점심 제공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11.30(목) 20:00~23:00, 20:00 미사
 강사 : 나정신 자매(서울대교구)
 - 100단 묵주기도(미사 · 안수) / 점심 제공
 · 12.18(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가톨릭센터 직원 구함
 [안내 및 주차관리]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교적사본 / 접수마감 : 12.4(월) 17:00, 면접 개별통지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6층, 7층)
 용도 : 사무실(6층 15평, 7층 20평)
 문의 : 462-1870(행정실)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11.27(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 644-1729, 0272

바오로 아람터 후원회 미사
 · 11.27(월) 10:30 · 바오로아람터
 문의 : 514-6988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첫금철야 첫토요신심미사
 철야 : 12.1(금) 21:30 푸른군대 경당
 강사 : 안창호 신부(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 12.2(토) 11:00 - 생명 수호(태아)를 위한 십자가의 길, 야기봉헌 및 갱신 있음(사전접수)
 문의 : 646-3746(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오순절평화의마을 입소 안내

주변에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안내바랍니다.

[입소 대상자]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노숙의 위험이 있는 자로서

① 무연고자 ② 연고자의 노령이나 사망으로 부양이 어려운 장애인 ③ 연고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대하는 자로서 생활능력이 없는자

*부산/밀양 이외 지역은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 (051)352-4241(내선816/818)

<p>묵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p> <p>서울공예사</p> <p>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0631-5006, 631-5007 황인환(가를로) · 김경자(모니카)</p>	<p>분도목공소</p> <p>제대, 강론대, 장래틀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p>커피창고 (인플렉션컴퍼니)</p> <p>부산경남 원두커피머신 단가장기렌탈 비리스타출장, 커피케어터링, 커피재료 도매 김 재 윤 (헨리코) 010-5575-0262</p>	<p>(주)부산 리무진 장의차</p> <p>각 본당의 연도회정님께 연락하시면 부산교구청과의 계약된 내용대로 할인 금액(약3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 성 수 (미 카엘) 418-4444</p>	<p>포장이사 전문업체</p> <p>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p> <p>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p> <p>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혈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일, 박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p>	<p>법무법인 올강</p> <p>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 법률상담 대표번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p>	<p>바른성모안과</p> <p>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시구정 옆 바른병원 3층</p>	<p>종합법률사무소 로앤리 (변호사 이세진&변호사 이윤대) 사무장 김 성 철 (마르코) 010-5658-7748 717-3530 연제구 범원로 12, 1305(회계동 로앤리) 경정청 정영안</p>	<p>한미모피</p> <p>밍크, 여우, 각종모피제품 도매 명크리트, 소품 등 A급 리폼, 수선 박 재 석 (베드로) 645-8877, 647-8877 부산진시가지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p>

한국골프협회 창립기념 및 송년감사미사

· 12.2(토) 17:00 · 사상구 학감대로 120
회장 : 전철우 / 문의 : 010-3838-1025

부산가톨릭대학 신입단원 모집

· 11.29(수), 12.6(수) 20:00
· 부산가톨릭대학교 로사리오관 102호
대상 : 성음악에 관심있는 신자 및 예비신자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1곡 준비(전공, 나이제한 없음)
정기연습 : 매주 수 19:30 / 문의 : 010-3850-6153

교육 · 모집 · 기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11.28(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 구숙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12.1(금) 11:00 · 남천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예수성심의 우리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 12.1(금) 14:00~17:00(미사 16:00)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 성분도 은혜의집 / 주례 : 김대선 신부
문의 : (02)379-8091

살레시오 무료특강

· 11.28(화) 10:00~11:00 / 접수 : 11.27(월)까지
주제 : 우리아이 흥미를 비범성으로 키워주는 열쇠,
책임기 / 대상 : 관심 있는 누구나, 미디북교실학부모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집, 남천동)

하느님의 자비신심 묵상회

10차 : 12.5(화)~8(금) 매일 19:30 김해성당
문의 : (055)334-3264
11차 : 12.16(토)~17(일) 1박 2일 영성의 집
문의 : 010-3847-2796

코이노니아 가족피정

· 12.9(토) 16:00~10(일) 16:00 · 성심영성센터
내용 : 가족간의 친교와 영적나눔, 추억만들기
문의 : 581-3114

성바로수도회 말씀학교 피정

· 12.13(수) 10:00~16:30 · 가톨릭센터
미사 준비 / 회비 : 1만원(점심, 간식 제공)
강사 : 황인수 신부(교부학, 성바로수도회)
내용 : 코린토서간 / 문의 : 010-9333-6260

전교가르멜수녀회 청년대림피정

· 12.10(일) 10:00~16:00 · 전교가르멜청원소
피정비 : 1만 5천원 / 대상 : 40세 이하 청년남녀
문의 : 010-9479-7334

마리아유치원 2018학년도 정교사 채용

정교사 자격 소지자(신자 및 3년 이내 경력교사 우대)
서류 : 자기소개서-mariakin@hanmail.net, 이력서(사진부착)
문의 : 253-4885, 010-9633-1335(서대신성당)

2018학년도 원감 및 담임교사 채용

자격 : 유치원 1,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한 교사
문의 : 646-6372(소화대테사유치원)

아순타의집 신규이용자 모집

대상 : 신변처리 가능한 남성(지적, 발달장애인),
낮 시간 근로, 주간보호,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는 자
모집 : 1명 / 문의 : 010-6636-3503

청주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무료 치유 피정

· 12.1(금) 18:00~3(일) 15:00 / 무료 숙박
문의(010-3798-5418) : 부산역(10:10)-서면우체
국 12번 출구(10:20)-시청 건너 4번 출구(10:25)
동래 전철 3번 출구(10:50)-김해시청 건너(11:10)

성골분반회 창설 100주년 기념 개막미사

· 12.2(토) 14:00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주례 : 김희중 대주교
문의 : (02)926-1217(성골분반외방선교회)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열린 대림의 밤

· 12.2(토) 19:00 · 본원 성당
내용 : 대림예절, 친교 / 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문의 : 010-3113-6219

한티순교성지 피정

· 12.9(토) 16:00~10(일) 13:00
주제 : 우리시대 웰빙과 힐링(힐링피정)
강사 : 김정우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문의 : (054)975-5151

해님이피정(수도원에서의 송구영신)

· 12.29(금) 16:30~31(일) 13:30
·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 참가비 : 16만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후 입금
문의 : (054) 971-0722, 010-9877-4739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2.3(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겨울학기 학생 모집

■ 모 집 12/1(금) 까지
■ 수 업 주 5일(월~금) 4시간/일
■ 대 상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등
문의 : 510-0866, dengnx@cup.ac.kr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 간병비 부담 감소 *
*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7년 12월 1일(금) 부터)
부산가톨릭의료원 문의 : 원무팀
메리놀병원 461-2589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사진교실 수료전
"감성의 빛을 찾아서.."
전시 / 11.30(목)~12.8(금) 10:00~18:00
장소 /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내용 : 사진교실 6기, 8기 수료전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 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실업자 국비지원
간병사 대모집(초보자 가능)
: 병원/개인, 단체, 포괄간병
취업연계, 우수훈련강사진
818-1004, 245-1004
천사요양보호사교육원

성모치과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전국상가, 토지매매, 경매전문 태양공인중개사
대표. 김 창 환(심플리치오)
010-3874-1627

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 박인호(후카), 한경문
소화기 내과 : 최병택, 유찬희, 남화성
류마티스 내과 :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의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검진 : 홍유진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

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션제품, 예품과 커플링
무주만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희(오셀), 손혜경(오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고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아네스)

2018년 신심단체 성지순례 상담/예약
미래고속관광
임애경(첼마)
055-333-6300, 010-9809-6300

라엘미디어
1:1 맞춤형 웨딩영상 및 동영상 제작
촬영지역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표. 양성재(라파엘)
010-9889-5433

더고운 피부과 의원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세원(타메오)
558-7575
은전장역 동래골플러스(튀뮈) 우성빌딩 3층